

# “한·중 인적교류 1000만 시대 기대...가교 역할 하겠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채희중 광주일보 정치담당 편집국장 대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늘면서 중국인이 아름다운 호남 지역을 더 많이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를 확대하길 바란다”면서 “주한중국대사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직원들과 합심해 호남 지역과 중국의 협력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 지역은 지리적 우위와 풍부한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북한 국민과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과 협력하는 데 유리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싱 대사는 또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중국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화해한 사례를 거론한 뒤 “중국과 한반도는 서로 가까운 이웃으로 중국은 남북한 국민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중국은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서로 자국을 주는 것을 피하며 함께 정세를 완화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한중국대사로 부임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한국 생활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번이 네 번째 한국 근무로 한국의 자연 경관, 사회 모습 그리고 풍습과 인정이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한국 부임 이후 얼마 안돼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마침내 코로나19의 추운 겨울을 벗어나 꽃 피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됐다. 이 점이 가장 감개무량하다. 3년 전 추석 때 서울 명동 거리를 찾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 그분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격려했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의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명동에 들어선 저를 변화한 거리, 복작거리는 사람들, 분주한 상인들을 볼 수 있었고 익숙한 중국어가 다시 귀에 맴돌

았다. 조만간 다시 한·중 간 인적 교류 1000만명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소개해달라.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베이징 합의를 달성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3국은 공동 성명을 서명·발표했으며, 이로써 사우디와 이란 양국은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각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지역 문제에 대해 화해와 대화를 촉구하는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해 중동 국가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다. 사우디와 이란 간의 배

## 호남 각 시·도, 중국과 긴밀 교류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 중동 문제, 대화·협상으로 해결 ‘한반도 평화’에 중국 역할 할 것

이정 회담에서 이뤄낸 중요한 성과는 대화와 협상만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바른 길임을 보여줬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3차 회담에서 4차회담, 6차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회담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룰 때마다 그 뒤에는 항상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중국이 있었다.

중국은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중요한 책임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상반되는 행동을해서는 안된다.

-광주에 호남을 아우르는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해달라.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전신은 ‘주한 중국대



사관 주광주 영사 사무소’로 지난 2009년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으로 정식 승격됐다. 총영사관은 광주 시 및 전남·북 각계각층과의 업무 연계 강화를 줄곧 중시해왔고 호남지역의 대중국 교류 협력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청강 현 총영사의 적극적인 업무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총영사관은 호남 지역 실정에 기반한 대중(對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는데, 이미 24개 중국계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이들 기업의 다양한 산업 형태와 왕성한 발전 활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총영사관은 또 새만금개발,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대중 협력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곳에 입주하는 중국 기업도 점차 늘고 있다.

총영사관은 호남지역과 중국 각 지방 간 우호 교류를 심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북, 광주시와 산하 시·군·구와 중국 상·시·구 간 50건의 자매·우호도시 관계가 체결됐고, 60건의 우호 협력 관계가 수립됐다. 호남지역과 중국의 인적 교류 역시 매우 활발하여 현재 2만여 명의 중국 교포와 5000명에 달하는 유학생이 있다. 모두 양국 우호의 생생한 증거이며 양국 국민의 우의를 계속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중국과 호남은 오랜 소통의 역사가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광주·전남은 중국과의 소통 및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언을 해주다면.

▲한중 수교 31년 간 양국 관계와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작년 한중 무역액은 362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양

## 시·군 방문하며 역사·풍경에 매료 주희·정율성 등 역사적 연원 깊이 풍부한 특산물, 중국과 협력 유리 엔데믹 맞아 교류 더욱 활발할 것

국의 공동 발전에 강력한 추진 작용을 했다. 지방 교류는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하다. 호남지역 각 시·도는 오랫동안 중국 지방 상·시(省·市)와 긴밀한 교류 협력을 이어오며,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코로나19의 먹구름이 점차 물러가고 양국 간 교류가 회복됨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 협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코로나19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고 대중국 교류 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상생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과거 광주·전남을 방문했을 때, 인상에 깊었던 일이 있었다면.

▲대사로 부임한 이후 3년여 간 광주, 군산, 광

양, 순천, 목포, 무안, 해남, 영광 등 호남 지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친절하고 호의적인 면과 중한 우호 관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호남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인문학적 역사에 매료됐다.

호남 지역과 중국은 역사적 연원이 깊고, 많은 유명 위인들의 이야기가 이 곳에서 시작됐다. 해남군에는 명나라 진린 장군과 그의 후대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화순군에는 남송의 성리학 대가인 주희를 모시는 주자묘가 있다. 또 광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의 작자구 정율성 선생의 이름을 딴 길이가 있다. 작년 광주의 정율성 거리를 방문했을 때, ‘한중 관계는 중요하므로 반드시 잘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현지 주민들의 당부가 있었다. 이 진심 어린 당부에 막중한 책임감과 한중 양국의 긴밀하고 견고한 감정적인 유대를 느낄 수 있었다. 수교 이후 31년 동안, 한중 우호는 시종일관 양국 관계의 주된 기조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광주·전남 지역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의 중국 수출을 위해 지역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올해 양회에서 ‘중국이 개혁의 밥을 먹고 개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고 호혜 상생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호남 지역은 지리적 우위와 풍부한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어 중국과 협력하는 데 유리한 지역이다. 호남 지역이 중국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작년과 올해가 ‘전남도 방문의 해’라고 들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해외로 나가는 중국 국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한중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늘면서 양국 국민들의 인적 왕래도 점차 편리해질 것이다. 주한중국대사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의 직원들과 합심해 호남 지역과 중국의 협력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정리·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나경원 만난 김기현 ‘김나연대’ 부각

수도권 대표 인사와 만남 관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김나연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훈현충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자동 나경원 회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동자동 당협위원장인 나 전 의원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구자근 의원, 김여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과 과거 인연을 언급하면서 “격려를 ‘나기현’ ‘김경원’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나 전 의원은 김 대표에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위로의 말을 건넸다”며 “김 대표는 당원들 앞에서 ‘나 전 의원은 당원들 앞에서 ‘나’라 부르며 지켜 세워줬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남 대구 출신인 윤재옥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당 안팎으로부터 “지도부가 ‘친윤·영남’ 일색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이날 당내 대표적인 수도권 인사로 꼽히는 나 전 의원을 만난 것이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나경원

## 국힘 새 원내대표에 TK출신 윤재옥

국민의힘의 원내서령탑이라는 중책을 맡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지역의 3선 정치인이다.

경찰대 1기 ‘수석 입학·수석 졸업’ 이력으로 잘 알려진 신 신임 원내대표는 경찰 재직 당시 정보·외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 요직을 섭렵했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내공을 쌓은 만큼, 정치인이 돼서도 신중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을 인정 받았다.

그는 2012년 총선 대구 달서을 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고, 20·21대 국회까지 10여년 간 쉬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윤재옥

경찰 출신 전문성을 심분 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고, 정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약하기도 했다.

원내 지도부로서 역량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입한 ‘드루킹 특검법’ 협상 때 인정받았다.

당시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며 여론전에 나서는데, 윤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치열하고도 끈끈한 물밑 협상을 통해 결국 드

루킹 특검을 관철했다.

그는 3선 의원이 된 21대 국회서부터는 꾸준히 원내대표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은 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신 신임 원내대표가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분 부장 겸 상황실장으로 합류하며 맺어졌다. 이 때문에 ‘친윤(친윤석열) 의원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장제원·권성동·이철규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는 묶이지 않아 보다 폭넓게 당 정권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윤 신임 원내대표가 경남 합천 출신의 TK 중진 의원인 만큼,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TK 홀대론’을 잠재우며 당 핵심 지지층을 더 견고히 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783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열람 공고

광주광역시와 봉산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첨단방면 연결로 및 봉산공원 주민입로 개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 광주광역시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 번호	구간	총연장 (m)	면적 (㎡)	중요 경과지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광주광역시도	대로 2-11호선	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5-2번지 (교통광장 85호) 종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80번지 (대로2-11호선)	757.6	기정: 24,540.0 변경: 24,530.6 감: 9.4	봉산 근린공원, 교통광장 85호	○지적 누락 및 불부합으로 인한 선형 조정 ○관계기관(부서)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세부설계 변경

2. 재 열람공고 사유  
-지적 누락 및 불부합으로 인한 선형 조정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세부설계 변경,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

3. 사업 시행기간(변경)  
-당초: 2018. 11. 5. ~ 2022. 12. 31.  
-변경: 2018. 11. 5. ~ 2024. 6. 30.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광주광역시청, 봉산공원개발 주식회사

5.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2023. 4. 7. ~ 2023. 4. 20. (14일 이상)  
-열람장소: 광주광역시(도로과 ☎062-613-4722 / 도시공원과 ☎062-613-446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사 및 용지도(변경)  
-시 홈페이지 및 도로과, 도시공원에 비치 열람

7.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도로과 및 도시공원과 비치 열람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조사 및 용지도  
가. 토지 편입조사(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구	동			대지면적	편입면적		
합 계	합 계		27필지		91,935.1	24,540		
1	광산구	수완동	5-28	도	951	951	광주광역시	
2	광산구	수완동	5-29	도	261	261	광주광역시	
3	광산구	월계동	705-4	도	78	78	광주광역시	
4	광산구	월계동	720	도	148	2	국토교통부	
5	광산구	월계동	705-25	도	1,574	1,564	광주광역시	
6	광산구	월계동	865-1	도	40,267.5	3,837	광주광역시	
7	광산구	산월동	880	도	37,094.6	12,060	광주광역시	
8	광산구	월계동	705-22	도	178	8	광주광역시	
9	광산구	월계동	705-24	도	169	5	광주광역시	
10	광산구	월계동	705-21	도	36	2	광주광역시	
11	광산구	월계동	705-18	전	626	626	광주광역시	
12	광산구	월계동	705-19	임	1,749	1,749	광주광역시	
13	광산구	월계동	산22-2	임	277	277	광주광역시	
14	광산구	월계동	705-17	전	109	109	광주광역시	
15	광산구	월계동	706	담	180	180	광주광역시	
16	광산구	월계동	704-2	전	214	214	광주광역시	
17	광산구	월계동	703-1	담	3	3	광주광역시	
18	광산구	월계동	700-2	전	118	118	광주광역시	
19	광산구	월계동	700-4	임	409	409	광주광역시	
20	광산구	월계동	700-5	임	190	190	광주광역시	
21	광산구	월계동	700-3	임	84	84	광주광역시	
22	광산구	산월동	798-4	임	754	754	광주광역시	
23	광산구	산월동	산22	임	3,359	484	신영부동산 신택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24	광산구	산월동	산21-3	임	1,621	7	김○자 정○현 정○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20번길47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25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55
25	광산구	산월동	798-6	임	525	525	광주광역시	
26	광산구	산월동	798-3	임	34	34	광주광역시	
27	광산구	산월동	759	대	926	9	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20번길47

나. 토지 편입조사(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구	동			대지면적	편입면적		
합 계	합 계		24필지		100,220.3	24,530.6		
1	광산구	수완동	5-28	도	951	951	광주광역시	
2	광산구	수완동	5-29	도	261	261	광주광역시	
3	광산구	월계동	705-4	도	78	78	광주광역시	
4	광산구	월계동	705-25	도	1,574	1,574	광주광역시	
5	광산구	월계동	865-1	도	40,267.5	3,837	광주광역시	
6	광산구	산월동	880	도	37,094.6	2,403	광주광역시	
7	광산구	산월동	880-3	도	9,732.6	9,657	광주광역시	월계동 880에서 분할
8	광산구	월계동	705-18	전	626	626	광주광역시	
9	광산구	월계동	705-19	임	1,749	1,749	광주광역시	
10	광산구	월계동	산22-2	임	277	277	광주광역시	
11	광산구	월계동	705-17	전	109	109	광주광역시	
12	광산구	월계동	706	담	180	180	광주광역시	
13	광산구	월계동	704-2	전	214	214	광주광역시	
14	광산구	월계동	703-1	담	3	3	광주광역시	
15	광산구	월계동	700-2	전	118	118	광주광역시	
16	광산구	월계동	700-4	임	409	409	광주광역시	
17	광산구	월계동	700-5	임	190	190	광주광역시	
18	광산구	월계동	700-3	임	84	84	광주광역시	
19	광산구	산월동	798-4	임	754	754	광주광역시	
20	광산구	산월동	산22	임	3,359	481	신영부동산 신택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21	광산구	산월동	산21-3	임	1,621	7	신영부동산 신택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22	광산구	산월동	798-6	임	525	525	광주광역시	
23	광산구	산월동	798-3	임	34	34	광주광역시	
24	광산구	산월동	759-7	대	9.6	9.6	광주광역시	산월동 759에서 분할